

# 동서양 악기 만나 '흥겨운 대화'



'누모리 쇼'의 악기 셋업. 왼쪽부터 팽과리, 전자기타, 판소리, 드럼, 전자오르간, 베이스기타 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팽과리가 매기면 베이스 기타가 받는다. 전자기타의 날카로운 소리가 '주머니' 하면 포근한 장구가 '받거니' 한다.

지난 22일 저녁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 '누모리 쇼'는 서양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일렉트로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국악의 신명에 익숙한 중·장년층부터 전자음악의 매력에 빠진 어린이·청소년까지 관객들의 연령층은 어디까지 없었다.

현대 음악에서 장르 간 융복합을 꾀하는 트랜스 무대가 아주 낯선 것은 아니지만, 수천 년간 이어 온 우리의 전통 음악에 서양악기를 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곡 '문엽쇼'가 펼쳐지면서 걱정은 기우였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팽과리, 일렉기타, 세 대의 장구, 오르간, 베이스 기타의 선율이 소리꾼들이 차례로 나와 대목별로 판소리를 연행하듯 음을 더했다. 이어지는 '흥보'는 역동적인 춤사위와 흥이 부각되는 곡인데 평기한 디스코 리듬과 개성 있는 편곡이 흥겨움을 느끼게 했다.

공연의 백미는 '도깨비불이 났다'. 그릇된 선택으로 인한 죄책감을 주제로 담아서인지 음산한 분위기가 압권이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은 진경산수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몰입감을 자아냈다. 이어진 소리꾼은 "다시 무너졌고 또다시 일어났다 다시 불을 지핀다"는 후렴구를 반복했는데,

## 광주예술의전당 '누모리쇼' 리뷰 팽과리·일렉기타·장구·오르간 등 우리 전통 가락에 퓨전음악 모미 미국 케네디홀에서도 초청 공연 크로스오버 무대에 관객들 환호

모진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는 울곧은 정신을 담으려 했다.

진중했던 분위기는 급반전되더니 귀여운 다람쥐 이미지가 영상에 나타났다. 자진모리장단과 디스코 음악의 퓨전으로 어깨를 들쭉이게 하는 곡 '다람쥐'를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경기민요 전주 자이자 JTBC '풍류대장'에 단독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윤세연이 선보였다.

이외에도 서정적인 감수성이 가득한 '반딧불을 쫓고'와 '까투리'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이었다. 관중석에서 "얼췌", "귀엽다" 등의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이후 스크린에 붉은 달이 떠오르더니 무대는 다시 정숙. 오묘한 느낌을 자아내며 분위기를 반전하는 '땡 땡'은 '정가'인데 구민지가 들려왔다. 구수한 판소리나 민요가 서민음악이라면 주로 사

대부들이 향유했던 정가는 절제미를 특징으로 한다. 다섯 박자에 맞춰 울려 퍼지는 구씨의 국악 장단은 뉴에이지 음악과 합을 맞췄고 낯선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하여주오'와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니'도 정가 특유의 송결함과 엄숙함이 부각된 곡이었다. '움'이라는 낯선 추임새가 공명하듯 퍼져 나갔고 신비로운 빛이 쏟아졌다. 정가가 흐르는 동안에는 팽과리 같은 익숙한 전통악기마저 제사장의 신비로운 소도구처럼 보였다.

소리꾼들 없이 누모리의 악기로만 무대를 채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비를 주소서'와 '왕거미'는 보컬 없이 악기만으로 연주된 일종의 기악곡인데 동·서양 악기가 뒤섞이는 한 판 이채로운 무대였다.

이외에도 취기가 느껴지는 '취한다 취해'와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쾌지나' 등도 이어졌다. 기우제를 형상화한 '비를 주소서'는 대취타와 락음악이 융합된 곡으로, 이날 비 내리던 소극장의 야외 정경과도 어우러졌다.

한편 누모리는 지난 2018년 미국 국립예술의전당(J.F 케네디센터) 밀레니엄 스테이지에서 단독 초청공연에 오른 바 있다. 전통의 가락과 뒤섞이는 퓨전음악의 묘미가 앞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킬지 이목을 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농악의 신명' 춤 춘다

광산농악보존회, 굿공연 세번째 '만드리굿' 26일 전수교육관



지난 '사시사철 굿이여' 공연에서 공연하는 풍물패의 모습.

과거 농악은 마을 제례, 공연, 의례 등에 녹아민 중의 애환을 씻어주는 매개체가 됐다. 공동체의 해체와 맞물려 현대에는 판굿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농악 연행은 위축된 것이 사실.

농악이 형용하는 고상한 맛을 담은 공연이 무대에 펼쳐진다. 광산농악보존회는 굿공연 '사시사철 굿이여'의 세 번째 프로그램 '만드리굿'을 오는 26일(오후 2시) 광산농악전수교육관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의 유구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공연,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식전 공연에서 국악 애호인들의 모임 '다드락'이 우리 신명을 삼도사물놀이로 담아낼 예정이다. 이어 만드리 굿을 주제로 '사시사철 굿 공연'을 진행한다. 가장 풀을 잘 매고 치는 일꾼을 소에 태우고 큰 깃발을 앞세워 들녘을 순회하는데서 유래했으며, 농군들의 단결과 풍년을 기원하는 지혜가 담긴 굿판이다.

들어본다는 말의 전라도 사투리인 '데다보기'에서 본뜬 '광산농악 데다보기'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광산농악의 악기별 유래와 전송과정, 특징 등을 전수자에게 직접 배우는 시간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판의 기능역할을 수행하는 '광산농악의 북', 진중한 광산농악복 이수자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악 그것이 알고 싶다'도 열린다. 수수께끼 풀이, 큰기의 깃발싸움, 악기 두드림을 통한 액막이, 도둑잡이, 들노래 등의 농악 행사를 스탬프투어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광산농악보존회는 1990년 설립돼 2년 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됐다. 지난 2020년 10월 광산구 하남동 가야재 인근에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을 개관해 전통문화를 선보이려는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도 광산농악기 소고를 소재로 진행 예정. 자세한 사항은 광산농악보존회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촬영기술 배우고 사진작가 도전~

ACC, 30일~9월 20일 중고생 대상 '포토그래퍼' 운영

근현대 건축 사진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직접 사진작가가 돼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포토그래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 내 문화교육실1.

이번 '포토그래퍼'는 ACC 특별전시 '사진작가가 바라본 근현대 건축 풍경'과 연계한 청소년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건축 사진을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하고 직접 사진작가가 돼 작품을 만들어 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직 사진작가와 함께 활용 매체 및 작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도 익힐 수 있다.

카메라의 구조와 촬영 각도를 비롯해 노출과 감

은 촬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건축 풍경을 사진에 담아낼 예정이다. 촬영한 작품을 선별 보장하고, 출력한 작품을 토대로 공유하며 전시를 이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15명, 수강료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ACC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작가가 돼보는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체험할 수 있다"며 "ACC는 앞으로도 자체 콘텐츠와 연계해 다채로운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 예술인 '아트&테크 역량강화' 참여자 모집

전남문화재단 27일까지

전남문화재단이 전남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아트&테크 융복합 창작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아트 부트캠프(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하드트레이닝)'라는 컨셉으로 광주, 목포, 순천 및 나주

등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과학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9~10월까지 2개월에 걸친 교육에 이어 11월에는 파일럿작품을 제작해 성과공유회(12월)에서 발표해야 한다.

기초교육은 다음 달 4일, 11일에 기술융복합 PM으로 활동 중인 류정식 대표와 김혜연 무용가

가 맡아 '예술가와 기술융복합 PM이 공유하는 예술의 기술 도구화'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심화교육은 '메타버스와 프로덕션', '모션캡처와 실감콘텐츠' 분반으로 나눠 차시별 20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파일럿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여자별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발표 및 전문가 심의를 통한 우수 수료자도 선정해 수료증을 수여한다는 계획.

자세한 내용은 전남문화재단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